

方法論爭의 爭點과 그 理由에 관한 小考

—經營學을 중심으로—

金 元 銖

《目 次》

I. 序 言	4. 마케팅論상의 方法論爭
II. 經營學上的 方法論爭의 經緯와 그 爭點	III. 方法論爭誘發의 理由
1. 方法論爭의 의의	IV. 方法의 本質的 性格
2. 獨逸經營學상의 方法論爭	V. 觀點의 本質的 性格
3. 經營管理論상의 方法論爭	VI. 結 言

I. 序 言

“학문은 대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방법론⁽¹⁾이란 현실을 보는 과학자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택하느냐에 따라 연구 대상이 달라지며 이론형성의 방향도 정해진다”(〔8〕 p.7)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식론상으로 인식주체의 대상구성작용을 증시하는 주관주의에 입각하는 方法優位論에 따른 것이다. 과거 300여년동안 근대 학문은 바로 이러한 방법우위론에 입각하여 전개되어 왔으므로 방법과 관련된 方法論議가 거듭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方法이란 협의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적 처치를 뜻하나 광의로는 認識目標, 考察方法 및 分科學(個別科學·專門科學, discipline) 상호간의 領域設定의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5〕 p.297). 그러므로 방법논쟁에는 특정학문의 성격, 대상의 범위 및 다른 학문(인접학문 또는 관련학문)과의 境界劃定 등의 문제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근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상으로 방법론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모색·전개되고 있는데(〔8〕,〔2〕 참조) 경영학 및 이의 관련학문상으로도 여러 차례의 방법논쟁이 전개되어 왔었다.

(1) 방법(method)과 방법론(methodology)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것이나(〔10〕 p.298) 양자를 동의어로 보기도 한다(ditto 注). 이하의 주장은 후자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법과 관련되는 논쟁은 보다 완전한 지식체계의 형성을 지향하는 학문적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한 인식의 진보 즉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검토는 학문발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경영학의 하나의 源流學問으로 손꼽히는 독일경영학의 主流分科學問인 경영경제학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방법론쟁을 거듭하여 왔었으나 이와 方法論的基盤을 같이 하는 경제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즉 “이러한 방법론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맥럽(Machlup, F.)의 지적대로 ‘대다수 경제학자들에 의한 방법론에 대한 반감’은 초기의 경제학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서로 다투어 제시하려는 경향에 대한 혐오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방법론의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실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연구에만 골몰하게 되었다([19] p. 63). 그 결과 밀(J.S. Mill)流의 고전파적 귀납법이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기간동안 소위 비엔나씨클(Vienna circle)과 미국식 실용주의자들에 의한 과학적설명의 假說-演繹模型(the hypothetico-deductive model of scientific explanation)에 의해 대체된 이후부터 적어도 경제학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존재해 왔다([17] pp. 2-13, [2] pp. 125-126)”.

이처럼 동일한 經濟學的方法論의 맥락속에 자리잡고 있는 경제학⁽²⁾과 경영경제학⁽³⁾의 경우 한편에서 전자는 방법론상 무풍지대격으로 하나의 지배적인 방법에만 의존한데 대해 다른 한편에서 후자는 왜 격심한 방법논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상 경제학과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하는 독일경영학의 主流인 경영경제학상으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3~4차례 걸치는 격심한 방법논쟁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고 또한 미국경영학의 주류로 손꼽히는 경영관리론의 경우에도 역시 1960년대에 명시적이 아니라 하지만 방법논쟁을 겪었으며 경영학과 관련이 있는 마케팅학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논쟁의 진통을 겪어 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왜 특정의 학문영역상 이와 같은 方法論爭이 생겨나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논쟁상의 爭點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때문에 벌어지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經營學상의 方法論爭의 經緯와 그 爭點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와같은

(2) 英美流의 경제학으로 이해되는 것임.

(3) 독일류의 國民經濟學을 포함하는 經濟科學 속에 포괄, 이해 되는 것임.

방법논쟁이 생기게 된 이유와 그 결과 학문연구상 어떠한 歸結이 이루어졌는가 경영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經營學상의 方法論爭의 經緯와 그 爭點

1. 方法論爭의 의미

方法論爭이란 학문연구 내지 과학적인식의 方法의 차이에 따른 논쟁인데 이 때의 방법이란 독일의 경영경제학의 경우 인식목적(과학의 성질 : 순수 또는 응용·실천과학), 고찰방법(선택원리 : 관점, 수익성, 경제성 등) 및 區別(科學體系내에서의 배열 : 국민경제학 또는 경영사회학과의 관계 등)([16] p.6)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觀點 내지 立場 사이의 논쟁을 말한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상의 차이가 방법논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그 爭點을 중심으로 먼저 독일경영경제학상의 방법논쟁의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cf. [3] pp. 230-237)

2. 독일경영학상의 방법논쟁

(1) 第1次方法論爭

이 논쟁은 경영경제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私經濟學의 科學性과 관련하여 전개된 논쟁이므로 私經濟學論爭이라고도 하는데 이의 爭點은 바로 私經濟學의 學問의性格과 관련되는 논쟁이었다. 이는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技術論의私經濟學은 沒價値의科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즉 科學的私經濟學만을 科學으로 보는 입장과 이에 반대되는 관점 내지 입장간의 對立에서 파생된 논쟁이었다.

따라서 이는 科學 즉 학문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 하는 科學의 性格規定과 관련되는 논쟁으로서 이는 바로 다음에 보게 되는 미국의 경우의 科學-技術論爭(science-art issues)과 일맥상통하는 쟁점을 가지는 것이다.

(2) 第2次方法論爭

제1차방법논쟁이후 應用科學的인 技術論의 私經濟學은 經營經濟學이라는 이름 아래 활발히 연구성과를 쌓아 왔었는데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純粹科學을 지향하는 관점을 따르는 리거(Rieger, W)가 資本主義體制를 전제로 私經濟學의 대상인 경제주체는 利潤獲得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이므로 選擇原理는 收(利)益性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生産性, 經濟性 내지 共同經濟的 生産性을 선택원리로 하여 經營을 대상으로 보아 왔던 私經濟的 技術論者들의 주장을 비판한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爭點은 바로 경영경제학이 순수과학인가? 규범과학인가? 그 대상은 기

업인가 경영인가? 선택원리는 수익성인가? 경제성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이 논쟁의 쟁점도 역시 제 1차방법논쟁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본질과 과제를 둘러싼 것으로서 역시 학문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3) 第3次方法論爭

제 3차방법논쟁의 경우 그 쟁점이 된 문제점은 크게 나누면 방법문제와 비용문제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나 본고에서는 전자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 논쟁은 경영경제학을 순수이론과학으로 봄과 아울러 국민경제학의 일부분영역으로 보아 체계화를 시도한 구텐베르그(Gutenberg, E.)의 주장과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인접계분과학의 연구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學際的接近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적용하는 應用科學的立場을 따르는 메레로비츠(Mellerowicz, K.)의 주장 사이에 전개된 논쟁이다.

이 논쟁에서의 쟁점은 학문의 인식목표, 고찰방법과 경영과학(Betriebswissenschaft)⁽⁴⁾ 및 經營社會學 등과 같은 인접계경영분과학과의 구분의 문제 등이었다.

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저마다의 관점에 따른 方法論的研究가 크게 진전되어 경영경제학의 각 학파는 저마다 방법론적기준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이 학문의 理論化 즉 統一的理論의 체계화를 의도하여 순수이론, 기술론 및 규범과학의 3가지 연구경향이 확립되었으나, 規範論的 傾向은 점차 쇠퇴하고 순수이론과 응용이론적인 두가지 연구경향이 경영경제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도 기본적으로는 경영경제학의 학문적 성격을 둘러싼 것으로 볼 수 있다.

(4) 第4次方法論爭

제 4차방법논쟁은 아직 學史的으로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현존하는 理論의 과학성을 어떻게 기초지울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1960년대의 一般科學理論의 변모와 관련하여 학문의 발전을 理論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가 하는 學問發展의 방법과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여 객관적인 眞理를 얻음으로써 완전한 知識體系로 근접해 갈 수 있느냐 하는 方法論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는 앞의 1~3차의 논쟁과는次元이 다른 쟁점과 관련되는 것이다.

(4) 勞働科學(Arbeitswissenschaft)이라고도 한다.

둘째는 종래의 경영경제학은 ① 연구대상을 營利組織體로서의 기업으로 보고 資本所有者의 목적달성과 관련된다는 문제만 다루고 종업원의 利害는 무시 내지 경시하며 ② 이는 다만 미리 주어진(假定된) 目的을 위한 技術的 處方만을 내리는데 그치며 따라서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上位目的은 資本指向的일뿐만 아니라 反勞動指向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辯證法的, 批判的 勞動指向的 個別經濟學(AOEWL, Arbeiterorientierte Einzelwirtschaftslehre)의 관점에서 특히 共同決定企業을 인식대상에서 배제한 구텐베르크중심의 순수이론과 目的의 타당성과는 관련없이 수단의 合目的性만을 따지는 응용이론적인 경향을 아울러 가자는 경영경제학을 전통적경영경제학으로 보아 비판한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는 제 1 차방법논쟁시에 사경제학이 國民經濟學者들로부터 받은 利潤學(profitslehre)이라는 비판과 관련된다는 쟁점이 내포되어 있는데⁽⁵⁾ 왜냐하면 그 당시 각 연구경향을 대변하는 각 학파에서는 저마다 다음과 같은 反論을 폈었기 때문이다([9] pp.16-17).

① 理論學派~비록 營利企業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그들은 沒價值的의 立場을 강조하여 그것은 마치 정신병리학과와 정신병자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였다.

② 技術學派~경영경제학의 과제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財貨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며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가를 문제삼는다고 하여 이는 마치 의사의 技術論이 人體의 건강을 유지·회복하는데 쓰이는 것처럼 기술론적경영경제학은 경제구성체 즉 경영의 건강의 유지,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③ 規範學派~이 입장에서는 다른 학파의 학자들은 기업가로 불리는 하나의 인간집단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연구활동이 이 집단의 이기주의의 발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쳤기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이 학파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과 연구를 하는데 있어 그 前景에 기업가가 아닌 기업을 둔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영의 과학자(경영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있어 기업이란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직원)를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組織化되고 이에 의해 하나의 生動하는 統一體로 체계화되어야 할 諸力의 共同體로 인식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3. 經營管理論상의 방법논쟁([3] pp.163-172)

미국경영학의 주류인 경영관리론상으로는 명시적인 방법논쟁이 학계총동원의 형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문제의식화되고 있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들 수 있다.

(1) 科學-技術論爭("Is managing a science or an art" issues)

(5) 이를 제 2 차방법논쟁의 再生으로 보기도 한다. ([3] p.236.)

이 논쟁의 쟁점은 다음에 살펴 볼 마케팅學과 관련하여 명확히 부각되는데 대다수의 학자는 經營管理를 과학이며 동시에 기술(기예)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독일의 경우의 방법논쟁상 순수과학과 기술론의 대립과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는 쟁점이다. 따라서 이의 쟁점도 역시 學問의 인식목표 및 그 性格과 관련되는 것이다.

(2) 經營管理理論密林論爭(management theory jungle issues)([28] pp.2-17)

이는 쿤츠(Koontz, H.)에 의해 제기된 논쟁으로서 그 밀림은 경영관리론과 관련되는 저술과 연구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 이론내용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와 혼란은 경영관리론에 대한 密林과 같은 接近方法(approach)과 연구자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고 그 혼란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의 해결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그의 제안에 대해 사이몬(Simon, H.A.)은 접근방법의 다양성은 研究分業의 결과이고 그렇게 해도 經營管理科學이 크게 진보하였고 기업을 포함하는 조직체는 복잡성을 가진 複合시스템이므로 多元的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과학이란 다른 모든 창조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探險이며 도박이며 모험이라 하여 과학의 多樣性을 시인하고 있다([29], [28] pp-85).

그런데 이들 양자간의 견해의 차이는 결국 양자의 한정된 입장 내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쿤츠는 전적으로 전통적인 경영관리학의 입장을 따르는데 비해 사이몬은 혁신적인 組織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므로 양자가 충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저마다의 입장 내지 관점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5] p.70).

이러한 양자간의 論爭의 爭點은 흔히 말하는 바 方法論的單元論(methodological monism)의 입장에서 單一科學的方法命題(SSM. single scientific method proposition)를 내세우는 관점과 반대로 方法論的多元論(methodological pluralism)의 입장에서 複數科學的命題(MSM. multiple scientific method proposition)를 내세우는 입장간의 對立 즉 觀點의 對立에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마케팅論상의 方法論爭

마케팅論상 전개된 논쟁(marketing controversies)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7] pp.41-66 참조).

(1) 마케팅科學論爭("Is marketing a science" controversy)([6] pp.1-30 참조)

이 논쟁은 마케팅學이 성립된 이래 계속하여 거듭되는 논쟁으로서 이의 쟁점은 마케팅

팅이 科學인가 아니면 技術⁽⁶⁾(art)인가 하는 문제에 있는데 이 논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科學내지 學問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관점에 따른 對立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아케팅의 學問的 性格을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엔 명시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으나 다음의 마아케팅의 範圍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마아케팅 性格 및 範圍論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아케팅의 科學性여부는 첫째 마아케팅 範圍를 어떻게 보느냐, 둘째 科學의 性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21] p. 24).

(2) 마아케팅 概念擴大論爭(“broadening the concept of marketing” controversy)([7] pp. 41-66 참조).

이 논쟁은 마아케팅의 개념을 흔히 營利組織體인 企業의 有體財 및 이와 관련되는 서어비스의 마아케팅 領域만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非營利組織體인 非企業의 마아케팅 領域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마아케팅의 性格 내지 範圍와 관련되는 논쟁이다. 따라서 이의 爭點은 마아케팅論의 연구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러한 면에서 이 논쟁은 “마아케팅本質論爭”, “마아케팅의 企業行動 對 社會過程論爭”, 또는 “마아케팅의 境界論爭” 등으로도 불리워진다([10] p. 81 참조).

III. 方法論爭誘發의 理由

이상에서 살펴 본 바 諸方法論爭의 爭點을 중심으로 그것이 誘發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특정 分科學의 學問的 性格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에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특정의 分科學의 學問的 性格과 관련되는 쟁점은 광의의 方法에 포함되는 認識目的과 관련되는 爭點으로서 科學 내지 學問의 性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觀點의 차이에 緣由하여 유발된 것이다. 知識의 體系로 정의되는 學問 내지 科學을 연구하는 목적은 흔히 ① 설명 ② 예측 ③ 이해 및 ④ 제어(통제)에 있다고 한다.([21] p. 25) 이 중 ①~③의 인식목적에 따른 학문은 說明科學, 豫測科學 및 理解科學으로서 종래 이의 객관적인 인식은 가능하다고 보아 왔었다. 그러나 ④의 인식목적은 手段의 制御와 관련된 價値와 관련을 갖는 目的論的 認識을 하는 것이므로 흔히 技術論으로 불리워져 이의 科學性은 웨버(Weber, M.)에 의해 유발된 價値判斷論爭이후부터 沒價値的 科學만을 純粹科學으로 보는 입장에서

(6) art에 대해 技法, 技藝, technique에 대해 技術이라는 譯語가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13] p. 2. 註 3 참조) 慣例에 따라 기술로 번역함.

부정되어 왔었다.

따라서 독일경영경제학상의 1차방법론쟁과 미국의 경영관리론상의 科學-技術論爭 및 마아케팅론상의 科學論爭은 모두 學問的 性格을 둘러싸고 誘發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은 학문 내지 과학의 性格이 명확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두번째의 이유인 대상설정과 관련되는 고찰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왜냐하면 예컨대 마아케팅론상의 概念擴大論爭은 營利組織體와 非營利組織의 마아케팅을 포괄하는 범위확대론과 그렇지 않은 범위 한정론의 대립인데 이는 바로 대상규정을 위한 選擇性原理의 一貫性에 따른 대상규정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그 학문의 성격을 규정하여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독일경영경제학상의 2차, 3차 및 4차의 첫째와 관련되는 방법론쟁 및 마아케팅論상의 개념확대논쟁도 결과적으로는 學問的 性格을 규정하는 인식목적의 차이에 緣由하는 것으로 還元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경영경제학상 3차에 걸친 방법론쟁을 겪은 이후 純粹 또는 理論科學, 技術論 및 規範論의 3개 학과가 저마다 方法論的 研究를 거듭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왔었는데 이와 같은 個別科學的인 입장에서의 方法論的 研究成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2] p. 1).

“즉 경영경제학의 方法論的 定礎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때 전통적인 철학의 敎義에 입각하는 종래의 대다수의 연구는 경영경제학에 대해 아무런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음이 밝혀졌다.

전통적인 철학이란 어떤 고유의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전개하고 이 때 專門諸學科(諸專門科學 또는 分科學)으로부터의 요구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專門諸分科는 저마다 方法論的으로 독립하여 그에 필요한 基礎를 스스로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가장 철저히 달성한 諸(分)科學 즉 諸嚴密科學은 이러한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여 획득한 方法論的定礎化에 의해 이룩된 諸分科學의 성과는 비단 업밀과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諸專門學科에도 기본적으로 적합한 것이라는 認識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슈라이버(Schreiber, R.)의 주장은 종래 경영경제학이 그 방법론적 기초를 셴프러그(Schönplflug, F.)의 주장대로 세계관을 반영하는 철학적 인식이론에 바탕을 두었으나([35] p. 70) 그것만으로는 경영경제학의 科學性的 확보를 위한 定礎化作業이 업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므로 개별적인 方法論的 研究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方法

論的 摸索이 올바르게 전개된다면 그것이 갖는 學問상의 의의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純粹·理論-技術-規範이라는 學問의 性格을 둘러싼 논쟁은 이들 3가지 문제영역의 독자성과 그 관련 및 科學의 性格究明의 方法論的課題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經營管理論密林論爭도 역시 科學의 性格과 관련되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논쟁인데 왜냐하면 이 논쟁은 科學의 성격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科學觀의 차이에 따라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특정의 학문의 成熟度와 관련하여 嚴密科學의인 단계에 이른 것만을 학문 내지 과학으로 보는 靜態的科學觀이 종래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科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中心의理論과 수많은 一般原則(理)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體系化된 知識의 實體”([30] p.37)로 定義 되는데 대해 動態的科學觀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실험 및 관찰의 결과로서 형성된 一連의 개념 및 개념적구조(conceptual schema)가 상호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앞으로의 보다 효과적인 실험과 관찰을 할 가치가 있는 것”([36] p.25)으로 보아 과학을 보다 엄밀성이 낮은 暫定的(provisional)인 有效科學(valid science)으로 보고 있다. (ibid, p.38 및 p.58)

따라서 이들 두 과학관은 <圖 1>의 知識의 集合수준을 따를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정태적과학관은 理論化라는 지식의 체계화과정을 통해 형성된 理論수준에서 과학을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동태적과학관은 이를 개념의 집합수준의 未檢證된 原理(則)로 정의할 수 있는 假說의 體系를 科學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對象에 대한 우리들의 思考主體의 認識論상의 관점 즉 方法의 차이가 學問 내지 科學에 대한 상이한 認識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입장을 따르는 한 우리는 方法論爭

知識의 集合水準	科學的 認識段階
科學(學問) = 知識의 체계(綜合的)	(體系化)
↑ 理論 = 知識의 체계(部分的)	(理論化)
↑ 法則 = 普遍的 知識	(普遍化, 一般化)
↑ 原理(原則) = 檢證된 知識	(概念)
↑ 假說 = 개념의 집합	(假說形成)
↑ 概念	(觀察, 記述, 測定)
↑ 事實	

<圖 1> 知識의 集合水準과 科學的認識作業의 관계

의 渦中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方法優位論 즉 方法論的 多元論을 따르는 한 우리는 觀點의 對立을 超克하지 못하고 觀點의 相對性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문 내지 과학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cf. [5] pp. 66-69)

첫째, 명확한 연구대상 내지 主題(subject matter)를 가진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되는 一組의 現實世界的 現象으로서 과학은 이를 설명, 예측, 이해 및 제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科學的認識의 目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둘째,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에는 기초적인 均濟性(一様性, uniformity)이나 規則性(regularity)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해 支持받을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고 法則과 같은 一般化(普遍化, generalization)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나아가 說明, 豫測, 理解 및 制御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理論形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째, 分析的方法을 포함하는 科學的方法에 의해 그 조건이 間主觀的인 確認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間主觀的으로 검증가능한 절차 즉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연구된 것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定義되는 학문의 成立條件중 첫째와 둘째 조건은 對象 및 그 특성과 관련되는 조건이며 세째의 조건은 方法과 관련되는 조건이다. 만약 “方法이 學問을 결정한다”는 命題를 받아들인다면, 첫째 및 둘째의 조건 즉 대상과 관련되는 조건은 세째의 方法에 의해 자동적으로 규정되게 되므로 方法論爭은 대상과 관련하여 인식될 수는 없으며 方法 그 자체의 차이에 따라 유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方法優位論的 觀點에서 주장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方法論爭을 유발하는 근원인 方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本質을 究明하여 볼 필요가 있다.

IV. 方法의 本質的 性格

앞에서 보았듯이 특정의 연구대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認識論上 主觀主義에 속하는 方法優位論 즉 方法이 대상(이때에는 存在論상의 經驗對象과는 다른 認識對象임)을 결정하게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客觀主義에 속하는 對象優位論 즉 학문 그 자체는 대상이 가진 秩序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지식체계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바로 方法論的 多元論을 따르게 되어 흔히 方法(method)과는 다른 接近方法(approach)이라는 개념이 사

용된다. 이는 “현상의 多面性중에서 어떤 한 측면만을 떼어내어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특징을 말하는데 問題設定의 테두리와 거기에 포함되는 要因群의 성질의 특징…, 현상을 과학적모델化할 때의 規則과 技法 또는 모델設定이나 測定을 할 때의 基本的前提” ([13] pp. 333-4) 또는 “特定の 觀點” ([24] p. 10)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다른 접근방법으로부터 구별되는 독자적인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가짐으로써 성립된다. …(中略) 각각의 접근방법의 배후에 있는 독자적인 문제영역이 하나의 접근방법을 다른 접근방법으로부터 명확히 구별시켜 준다” ([14] p. 39)고도 설명되어 특정의 분과학에 고유한 방법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대상에 대한 “觀點의 수만큼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게 된다” ([24] p. 10).

그렇다면 이러한 接近方法은 앞서 본 학문 내지 과학의 세계의 성립조건인 科學的方法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사실상 특정의 選定된 觀點을 전제로 하는 연구방법인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특정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는 차이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科學的方法과 같을 수밖에 없다. 흔히 接近方法을 전제로 하는 方法論的多元論者는 科學的方法은 여러개가 있을 수 있다는 複數科學的 命題를 따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주장을 따르면 과학적방법과 접근방법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方法論的 單元論者는 單一科學的命題를 따르는데 그러면 과연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이러한 두가지 주장사이에 전개되는 論爭은 科學理論上에서 統一科學論爭(unity science issues)으로 불리워지는데 이에선 다음과 같은 爭點이 내포되고 있다.

- ① 單一의 과학적방법은 있을 수 있는가?
- ② 각 分科學은 저마다 다른 연구방법을 필요로 하는가?
- ③ 동일한 하나의 科學에 대해 적절한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는가?

方法多元論者는 “固有한 단일의 科學的方法이란 神話” ([22] p. 93)라 하여 양자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반면 方法單元論者는 “科學的方法은 하나 그리고 唯一의 것이 있을 따름” ([34] p. 164)이라고 하여 모든 학문 내지 과학에 적용되는 科學的方法은 하나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이하 方法多元論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그들은 方法과 技法을 混同하고 있다. ([27] p. 5) 어떤 分科學상의 技法이란 어떤 분과학의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데 있어 有用性を 발견하였던 특수한 道具 내지 裝置인데 이에선 개념적인 것도 있고 실물적인 것도 있다 ([20] p. 15). 마아케팅면에서 보면 예컨대 消費者패널, 질문서, 瞳孔檢査器, 리커트尺度, 複合回歸分析法, 多次元尺度法, 질문법, 무작

위추출법, 複合分類分析法, 多屬性分析法 등의 技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技法은 分科學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특수한 관찰이나 실험 및 실험 통계기법 등은 사회현상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사회과학의 성격은 자연과학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天文學에서는 망원경이 사용되거나 小集團研究에서는 一面鏡이 이용되는데 이러한 道具가 다르다고 하여 科學的方法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cf. [20] p. 15). 실제상 科學的方法이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 間主觀的이라는 의미로서의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절차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은 科學的 研究過程상에서 發見의 脈絡(context of discovery)과 正當化 내지 妥當化의 脈絡(context of justification or validation)을 혼동하고 있다. 사실상 어떤 分科學의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은 그 학문의 技法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학문의 正當化의 論理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7] p. 5).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란 假說, 原理(則), 法則 및 理論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知識의 實體를 科學이 수락 또는 棄却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 規則과 절차 내지 기준(rationale)을 말하므로([34] p. 164) 方法多元論은 결국 모든 分科學은 저마다 다른 研究의 論理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지게 된다.

사회과학이 다른 과학과 方法論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科學理論상 발견의 맥락으로 불리워지는 經驗的 研究의 영역과는 대조적인 正當化 내지 妥當化의 맥락으로 불리워지는 哲學的 關心領域에 속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는 技法이 아니라 研究의 論理 내지 方法論에 관한 主題를 문제삼는 것이다([27] p. 5).

그렇다면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 내지 타당화의 맥락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셀몬(Salmon, W.C)은 전자에 속하는 것을 마치 후자에 속하는 것인양 다루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發生的虛僞”(genetic fallacy)로 보고 이의 극단적인 예로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지적하였다. 즉 “나치스(Nazis)는 相對性原理를 그 創始者인 아인슈타인(Einstein, A.)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때문에 비난하였다([31] p. 12)” 왜냐하면 상대성이론을 평가하는데 있어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은 마땅히 무시되었어야만 하였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科學文獻상 발견의 문제와 정당화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연구자는 헛사리 이 함정에 걸려 들게 되었던 것이며([20] p. 16) 여러 科學理論家は 科學的 知識의 발견과 이의 정당화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34] p. 51).

이러한 면에서 볼 때 方法論 즉 正當化의 論理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나아가서는 各分科學 사이에 다르다고 하는 方法多元論의 主張은 首肯키 어려우며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보았듯이 科學上의 技法과 方法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發見과 正當化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주장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cf. [27] p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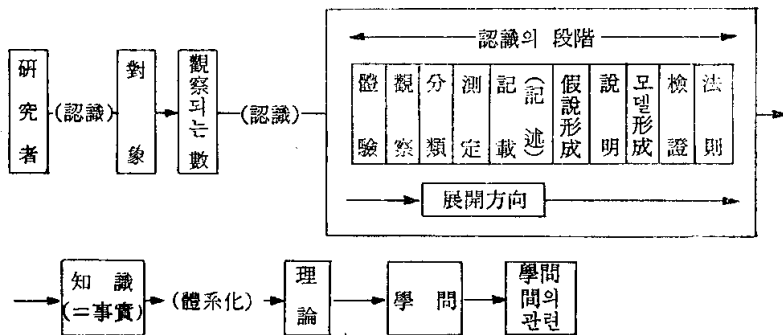
사실상 科學的方法이란 객관적인 인식에 이르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적용되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接近方法은 각 分科學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으나 本質的으로 그것들은 특정의 관점에 따른 대상의 어떤 側面만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科學的方法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V. 觀點의 本質的 性格

그렇다면 接近方法으로 표현되는 觀點이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일까? <표 1>은 經營學과 相關되는 文獻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접근방법을 一覽表化하여 본 것인데 이를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假說的인 科學的研究進行節次와 相關시켜 體系化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이에서 볼 때 각 접근방법이 반영하는 觀點은 예컨대 연구자가 선정한 특정의 認識의 기초, 인식목적, 인식논리, 연구대상, 관찰대상, 연구진행과정상의 절차 내지 단계, 연구전개의 지향성, 방향, 추론방식, 分科學의 명칭 또는 分科學的方法의 적용범위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연구자가 선정한 특정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왜 이처럼 특정의 관점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일까?



資料 : [5] p. 322

<圖 2> 科學的 研究進行節次(假說的)

〈表 1〉 接近方法的 종류

(1) 對象	靜態的 接近方法
社會科學的 接近方法	動態的 接近方法(發展論的 接近方法)
自然科學的 接近方法	歸納的 接近方法
機關別 接近方法	演繹的 接近方法
機能別 接近方法	比較的 接近方法
構造的 接近方法	批判的 接近方法
巨視的 接近方法	(4) 研究進行過程
微視的 接近方法	體驗的 接近方法
定性的 接近方法	觀察的 接近方法
定量的(計量的, 數理的, 統計的) 接近方法	分類的 接近方法
歷史的 接近方法	記述的 接近方法
理論的 接近方法	說明的 接近方法
政策的 接近方法	모델形成的 接近方法
社會的 接近方法	假說檢證的 接近方法
環境的 接近方法	(5) 分科學
生態的 接近方法	經濟學的 接近方法
(2) 研究者	法學的 接近方法
經驗的 接近方法	社會學的 接近方法
規範的 接近方法	心理學的 接近方法
技術的(問題解決的, 管理的) 接近方法	行動科學的 接近方法
科學的 接近方法	工學的 接近方法
非科學的 接近方法	政治學的 接近方法
分析的 接近方法	(6) 分科學間問의 관계
綜合的 接近方法	單分科學的 接近方法
辨證法的 接近方法	學際的 接近方法
시스템的 接近方法	多學際的 接近方法
制度論的 接近方法	(7) 學問의 研究接近方法
意思決定的 接近方法	學史的 接近方法
(3) 研究展開方向	學說史的 接近方法
抽象的 接近方法	學理(理論)的 接近方法
具體的 接近方法	

資料 : [5] p. 331

일찌기 쉐프프그는 經營學의 分化에 따른 학과를 분류하는데 있어 그 기준 내지 기초를 그들 학자가 따른 方法論的 差異에 두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方法論的 差異란 경영경제학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에 영향을 미친 認識理論의 바탕이 된 哲學的인 기초의 차이 내지 對立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학문 내지 지식의 체계화의 기초는 哲學 내지 世界觀상의 定理로 보았었기 때문이다. (cf. [35] pp. 64-65).

〈表 2〉接近方法的 體系化

- | | |
|--|---|
| <p>1. 研究者</p> <p>(1) 認識의 기초</p> <p>① 科學的方法</p> <p>② 非科學的方法(① 執着的, ② 權威的
③ 直觀的)</p> <p>(2) 認識目的</p> <p>① 實證的方法¹⁾ (理論²⁾的方法
技術的方法³⁾)</p> <p>② 規範的方法</p> <p>(3) 認識論理</p> <p>① 分析的方法</p> <p>② 綜合的方法</p> <p>2. 研究對象</p> <p>(1) 素材의 對象關係</p> <p>① 自然科學的方法</p> <p>② 社會科學的方法</p> <p>(2) 對象의 時間構造上的 次元</p> <p>① 歷史的方法</p> <p>② 理論²⁾的方法</p> <p>③ 政策的方法(問題解決的 研究方法)</p> <p>(3) 對象의 構成內容</p> <p>① 構造的方法</p> <p>② 機能的方法</p> <p>(4) 대상의 開放시스템性</p> <p>① 環境的方法(生態學的方法)</p> <p>(5) 對象內容의 屬性</p> <p>① 定性的方法</p> <p>② 定量的方法(計數的·計量的·數理的·統計的)</p> <p>3. 觀察對象의 數</p> <p>① 單一對象方法—事例研究方法</p> <p>② 複數對象的方法—歸納的方法</p> <p>4. 研究進行過程상의 절차 내지 단계</p> | <p>① 體驗의 내지 觀察的方法</p> <p>② 分類的方法</p> <p>③ 記述的方法</p> <p>④ 모델的方法</p> <p>⑤ 實驗的方法</p> <p>⑥ 理論形成的方法</p> <p>5. 研究의 展開</p> <p>(1) 研究展開의 指向性</p> <p>① 抽象的(一般的·普遍的)方法</p> <p>② 具體的(特殊的·條件適合的)方法</p> <p>(2) 研究展開의 方向</p> <p>① 演繹的方法</p> <p>② 歸納的方法</p> <p>(3) 研究展開上的 推論方式</p> <p>① 比較的方法</p> <p>② 批判的方法</p> <p>(4) 研究展開上的 특수개념</p> <p>① 시스템的方法</p> <p>② 制度的方法</p> <p>③ 意思決定的方法</p> <p>6. 分科學의 명칭</p> <p>① 經濟學的方法</p> <p>② 社會學的方法</p> <p>③ 心理學的方法</p> <p>④ 工學的方法</p> <p>⑤ 行動科學的方法</p> <p>7. 分科學의 方法의 適用範圍</p> <p>① 單分科學的方法(unidisciplinary approach)</p> <p>② 學際的(諸學協力的)方法
(interdisciplinary approach)</p> <p>③ 多分科學的方法(multidisciplinary approach)</p> |
|--|---|

資料: [4] pp. 17-18

- 1) 독일의 경영경제학상으로는 經驗論的·實在論的 研究方法이라 한다.
- 2) 이때의 理論은 바로 科學과 같은 높은 次元의 개념이다.
- 3) 미국식의 規範的方法과 같다.

이렇게 보면 科學으로서의 경영학의 연구상 方法論的差異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은 바로 경영학을 포함하는 諸個別 科學의 성립·전개의 근거를 규정지워주는 科學理論의 方法論,

즉 이의 體系化의 기초가 되는 哲學 내지 世界觀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페(Raffée, H.) 등은 오늘날 독일의 方法論爭⁽⁷⁾을 살펴 볼 때 그것은 두가지의 競合的인 科學理論의 基本構想, 즉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p.3)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미루어 앞서 본 바 方法論爭의 근원이 된 方法論的 差異는 바로 이들 연구자가 선정한 觀點 즉 패러다임의 차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接近方法에 의해 표현되는 觀點의 本質的 性格은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쿤(Kuhn, T.)은 패러다임의 본질을 대상의 선정, 평가 및 비판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相互結合된 理論的 및 方法的 信念의 暗默的인 實體로 보아 이것 없이는 科學의 역사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33] pp.16-17)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方法論爭의 근원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있음은 首肯이 갈 수 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란 개인의 信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이것에 의해 支配的理論으로 성립된 理論 즉 信念의 外部表出形態의 수준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多次元性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cf. [1] p.27). 이 때문에 일찌기 쿤은 패러다임을 무려 21가지의 뜻으로 사용하였었는데([26] pp.61-65) 어떤 경우에는 명확히 理論體系, 어떤 경우에는 막연하게 價値觀, 世界觀 또는 認識論的 觀點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다([12] pp.8-9). 어떻든 그는 패러다임을 支配的理論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26] p.27) 이는 바로 어떤 학문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개념이나 問題設定 및 이의 해결절차를 제공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認知된(또는 약간 적게 認知된) 중심적인 基本모델로서 이는 다음과 같은 質的基準을 충족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18] p.158).

- ① 問題解決能力(發見的機能)
- ② 普遍性(많은 對象集合과의 관련성)
- ③ 正確性(一義的結果)
- ④ 綜合能力(교육적인 體系化機能)

그런데 社會學者인 골드너(Gouldner, A.W.)는 理論이란 明示的으로 定式化된 假定(=公準)과 暗默的인 假定 즉 背後假定(background assumption)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후자는 人間과 社會에 관한 準理論的인 信念의 集合(a subtheoretical set of beliefs)으로 보고 이 중 가장 적용범위가 한정적인 배후가정을 특히 領域假定(domain assumption)이라 하고 있다.

(7) 이는 第4次方法論爭중의 둘째 見解 즉 1960년대에 전개된 現存理論의 科學性的 定礎와 관련되는 논쟁이다. (cf. [5] p.237)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배후가정은 특정의 연구자의 社會化의 초기과정에서 발전하여 그의 性格構造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情緒的인 認知道具로서 이는 그 연구자의 연구에 下部 내지 基礎構造(infrastructure)로서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 연구자를 이해할 때에는 그 背後假定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35], [11] pp. 264-265).

이와 같이 볼 때 앞서 본 바 方法論的差異를 생기게 하는 바탕이 되는 接近方法 내지 觀點의 차이는 바로 이들 연구자가 가진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의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쿤의 패러다임개념이나 쿨드너의 領域假定의 개념은 모두 그 개인이 가진 信念의 暗默的인 實體로 이해되어 양자는 모두 학문이라는 지식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價値 내지 價値觀의 集約形態인 思想을 示唆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論理 그 자체가 아니라 理論構築을 위한 전제(=假定)가 되는 연구대상의 특정의 영역 내지 측면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 信念, 價値 또는 간략하게 표현하면 대상을 보는 方法 즉 觀點 또는 接近方法인 것이며 이는 흔히 말하는 바 理論前提 내지 研究指向性和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cf. [1] p. 27).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찌기 쉐프르그가 여러 경영학자의 方法論的差異를 價値判斷 여부에 두고 그들이 가진 科學觀이 規範科學인가 存在科學인가 혹은 價値設定的科學인가 價値自由(沒價値)的 科學인가 또는 本質的 인식인가 事實的 인식인가에 따라 독일경영학의 학파를 크게 規範論學派와 經驗·實際論學派로 나눈 다음 후자를 다시 理論學派와 技術論學派로 나누었음은 바로 이들 여러 학자가 가진 觀點 내지 패러다임, 研究構想 또는 領域假定의 차이 즉 準理論的인 信念의 차이를 전제로 한 구분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쿤즈등은 그들의 저서 5版 이후부터는 학파분류를 接近方法을 기준으로 전개하고 학파(school)라는 용어대신에 接近方法(approac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23] pp. 35-42)에서도 이는 바로 쉐프르그의 분류기준과 동일한 觀點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觀點의 차이는 學派의 對立을 가져오고 이들 각 학파가 가진 準理論的 信念의 차이가 커서 支配的 理論體系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이들 여러 前패러다임學派(pre paradigm school)간에 方法論爭이 전개되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cf. [5] p. 90).

VI. 結 言

이상에서 경영학상으로 겪어 왔었던 여러가지 方法論爭상의 爭點 및 그와 같은 방법론

쟁이 유발되게 된 理由를 밝히고자 독일의 경영경제학, 미국의 경영관리론 및 마케팅論 상으로 전개된 方法論爭의 經緯와 그 爭點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론쟁이 유발되는 이유는 근대 300년동안에 전개되어 온 학문발전이 인식론상의 主觀主義의인 方法多元論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學問性格의 이해의 차이때문임을 인식하였다. 이는 곧 각 個別科學이 저마다 方法論의研究를 통하여 독자적인 方法 즉 흔히 接近方法으로 불리워지는 방법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接近方法은 單分科學的 方法(unidisciplinary approach)으로서 대상의 특성의 영역이나 측면 내지 문제만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과학적 방법이므로 대상을 선택하는 觀點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다른 方法論의 觀點을 가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方法論의 多元論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상선택의 觀點으로 이해되는 接近方法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方法論的 多元主義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方法論의 多元主義는 첫째 方法과 技法을 혼동하고 있고 둘째 科學推論상 發見의 문제와 正當化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되는 것임을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對象選定의 선택된 觀點을 나타내는 接近方法의 차이란 바로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 즉 準理論的인 信念의 集合으로서 특성의 학자 내지 특성의 학파에 속하는 연구자가 가진 持續的인 認知道具와 그 성격상 本質的으로 같다고 보아 方法論的 差異에 입각하여 야기되는 方法論爭은 결국 라페가 지적한 바와 같이 觀點(=接近方法) 즉 패러다임의 차이에 연유하는 것임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고찰의 결과 결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결국 方法論爭이란 대립적인 觀點 내지 方法을 가진 前패러다임의 學派들간의 패러다임의 차이와 대립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이를 方法多元論의인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方法論的 岐路에서 어떻게 對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方法論의 多元論을 시인하면 저마다 다른 대상의 특정측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個別的 認識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單分科學的 成果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오늘날 대상의 細斷化에 의해 저마다 自足的으로 형성 발전된 諸分科學的 集積단으로는 統合的 存在인 대상의 總體的 認識은 불가능하므로 각 분과학의 領域間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위 두 分科學에 걸쳐 적용되는 學際的 내지 諸學協力的 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한 인식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로 觀點의 相對性을 수락하지 않을 수밖

에 없는 單分科學的方法의 결함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간의 문제에 적용되는 二學際的 내지 兩分科學的方法(bidisciplinary approach), 나아가서 세 가지 측면간의 문제에 적용되는 三學際的 내지 三分科學的方法(tridisciplinary approach) 더 나아가서는 다수의 측면간의 문제에 적용되는 多學際的 내지 多分科學的方法(multidisciplinary approach) 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觀點 즉 패러다임의 相對性的의 超克을 위한 方法論的模索이 필요함을 知覺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學問研究란 대상에 대한 眞理의 探索이며 그와 같은 眞理는 궁극적으로는 絶對的眞理로서 완벽한 지식체계가 되어야만 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觀點 즉 패러다임의 相對性的의 극복에 의한 이의 絶對性的의 인식에 이를 수 있는 方法의 定立이 이루어져야만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本稿는 하나의 試論的模索이므로 讀者諸賢의 忌憚없는 批判을 바란다.)

참 고 문 헌(年代順)

- [1] 拙稿, “經營學과 패러다임”, 서울大學校經營大學經營研究所, 經營論集, 20卷 1號, 1986. 3.
- [2] 김경동·안청시편저, 韓國社會科學方法論의 探索, 1986.
- [3] 拙著, 經營學史, 1985.
- [4] 拙著, 經營學原論, 1984.
- [5] 拙著, 理論經營學, 1983.
- [6] 拙稿, “마케팅의 學問的性格”, 서울大經營大學經營研究所, 經營論集, 12卷 1號, 1983. 3.
- [7] 拙稿 “마케팅의 範圍에 관하여”, 서울大經營大學經營研究所, 經營論集, 11卷 1號, 1977. 3.
- [8]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現代社會科學方法論, 1977.
- [9] 市原季一, 經營學論考, 1981.
- [10] 加藤勇夫, Marketing Approach論, 1979.
- [11] 南山大學經濟經營學會編, 經營學 guidebook, 1979.
- [12] 村上陽一郎, 近代科學を 超えて, 1974.
- [13] 山本安次郎, 經營學說, 1979.
- [14] 一寸木俊昭, 經營管理論—その 史的展開の 考察, 1969.

- [15] 山本安次郎, 經營學の基礎理論, 1967.
- [16] 山本安次郎, 他獨逸經營學, (下), 1961.
- [17] Blaug, M.,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1980.
- [12] Raffée, H. und B. Abel, Wissenschafts theoretische Grundfragen der Wirtschaftswissenschaften, 1979. (同日譯書)
- [19] Machlup, F., Methodology of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1978.
- [20] Hunt, S.D., Marketing Theory, 1976.
- [21] Hunt, S.D., "The Nature and Scope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 40. July, 1976.
- [22] Zaltman, G. & P.C. Burger, Marketing Research: Foundations and Dynamics, 1975.
- [23] Koontz, H & C. O'Donnel, Principles of Management, An Analysis of Managerial Functions, 5th ed., 1972.
- [24] Narver, J.C. & R. Savitt, The Marketing Economy: An analytical Approach, 1971. (同日譯書)
- [25] Gouldner, A.W.,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Basic Books, 1970.
- [26] Lakatos, I. &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1970.
- [27] Rudner, R.S.,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1966.
- [28] Koontz, H. (ed), Toward a Unified theory of Management, 1964.
- [29] Simon, H., "Approaching the theory of Management," 1964 in [28].
- [30] Buzzel, R.D., "Is Marketing a science?" Havard Business Review, Vol. 41, Jan-Feb, 1963.
- [31] Salmon, W.C. Logic, 1963.
- [32] Schreiber, R., Erkenntniswert betriebswirtschaftlicher Theorien-Einführung in die Methodik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1960. (同日譯書)
- [33]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in Neurath, O. et al., eds., The Unity of Knowledge, 1955.
- [34] Bergman, G., Philosophy of Science, 1957.
- [35] Schönplug, F. Betriebswirtschaftslehre: Methoden und Hauptströmungen, 1954.
- [36] Conant, J.B., Science and Common Sense, 1951.